

근대 유물을 통하여 본 여자한복의 전통색

조 우 현⁺ · 이 호 정
성균관대학교 교수⁺ · 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Traditional Color of Women's Hanbok on the Relics in Modern Korea

Cho Woo Hyun⁺ · Lee Ho Jung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투고일: 2012. 8. 16, 심사(수정)일: 2012. 11. 25, 게재 확정일: 2012. 11. 30)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Hanbok fashion in the modern Korea by investigating the features of colors and color arrangements of remaining relics. The summary of findings from the researches and analysis from over 1840 pieces of Hanbok relics in modern Korea are as follows: First, since western-style cloth were introduced and utilized for Hanbok from 1960, the number of colors have drastically increased. However, the most commonly used colors and parts throughout all the periods remained the same. These are Y, R and white colors for Jeogori and Y, R and PB colors for Chima. And, as for the representative color of each of the six periods, significant changes of color were found Jeogori in the 1960~1970s. While no clear color changes were found in the period prior to the 1960s and after the 1980s. Secondly, as for the color tones, although the high luminosity-low chroma were generally used over the periods, it was observed that various colors of low luminosity-high chroma began to be used from 1960 and so Jeogori became more colorful. And lastly, Y and white color were taking up the highest percentage in the solid color arrangement. When composing 2 colors, the Y tone color dominants with R tone as sub-color was the most prevalent, and when 3 and 4 colors were combined, the extra color were increasingly seen in the upper garment cuff and collar so that the arrangement of different colors increased the aesthetic symbols when combined with the colors of the Chima.

Key words: color and tone(색상과 색조), color arrangements(배색), modern Korea(근대 한국), transition of costume color(복색 변천), women's Hanbok(여자 한복)

I. 서론

시각적으로 뛰어난 표현력을 지니고 있는 색채는 각 시대, 민족, 사회의 정서와 미적 가치에 대한 관념을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이다. 또한 21세기는 감성과 디자인의 시대로서, 전통색문화의 재해석과 재조명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색채와 배색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대에는 민족의 색채 성향이 전통성을 형성하였다.¹⁾ 삼국과 고려시대에는 국가별로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고유의 색채를 사용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음양오행설과 민족성을 바탕으로 정립된 색채관에 따라 신분과 계급의 질서가 확립되었다.²⁾ 조선후기에는 백색과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간색을 사용하였고³⁾, 말기에는 서양의 염색 기술과 염료가 유입되어 색채가 훨씬 다양해졌다.⁴⁾ 이와 같이 전통색채와 배색은 각 시대의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복색의 연구는 복식 유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실물 자료의 유실로 인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유기물, 외부 환경에 의한 오염 및 이염에 따른 변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실제 복식 유물자료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는 한국 복식문화의 주체적인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근대이후 여자한복 유물의 색채 및 배색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와 색채가 사용된 실제 여자한복 유물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자료는 L매장 소장(저고리 589)⁵⁾, C대학교 의류학과 소장(저고리 517, 치마 232)⁶⁾, 대전 S여자고등학교 소장(저고리 271, 치마 128, 두루마기 15)⁷⁾, 개인소장(저고리 51, 치마 26, 두루마기 5)으로 총 1834점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각종 문헌, 사진, 잡지, 신문, 광고, 회화 등을 통해 당시 사회문화적 특징 및 복식, 복색과 관련된 기록들을 고찰하여, 복색의 특징에 근거한 시기를 설정하고, 복식유물들을 시기별로 분류하였다. 이후 설정한 여섯 시기와 실제 복식 유물 사

이의 유의성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색채와 배색 특징에 따른 변천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자주적으로 근대화가 본격화된 1890년대를 기점으로 하고 하한연대를 2000년대까지로 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전통색' 개념은 특별히 당시 전반적으로 사용된 전체 색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색채 정서 및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한복의 색 체계를 이해하고, 한복의 색채 정보를 제공하여 한복 데이터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I. 근대이후 복색의 이론적 배경⁸⁾

한국 근대이후 복색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1890년부터 2000년 사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복식 기록들을 고찰하여 여섯 시기로 구분하였다(표 1). 이는 직물, 염색 혹은 복색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는 사회문화, 산업 및 착용자정서 등 그 배경과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구분하였다.

19세기 중엽 자본주의 열강의 침입과 의식의 변화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대한 반발심으로 한복의 착용이 더욱 증가했으며, 백색의 한복이 지속적으로 착용되었다. 1920년대에 新女性들은 전통복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면서 복식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1930년대 일본의 강요에 의한 양장 착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복에도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일본은 상·하의 동색으로 입기 등의 색복장려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신문과 잡지에 백의를 탄압하는 기사를 신고, 무상으로 염료를 지급하고, 장날마다 백의에 염색물을 뿌리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⁹⁾ 1940년대에는 전시경제 체제가 계속되면서 섬유공업이 군수 공업화되었으며, 일본은 내선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국민복의 착용을 강요했으며, 우리 국민들은 폭격을 피하기 위해 백의를 착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¹⁰⁾ 당시 유행 소재였던 레이스와 벨벳은 사용이 너무 많아 금지령이 내려졌고, 그 외에 면, 마, 모, 견, 인조견 등의 섬유가 사용되었다. 1953년 6·25전쟁 후 미군에 의해 나일론이 소개되었으며, 나일론 블라우스가

크게 인기를 끌었다. 1954년부터는 언론과 〈女人〉, 〈女性界〉 등의 잡지를 통해 여성과 패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소재의 등장 및 대중매체의 발달에 기인하여 한복에서 양장 중심으로 복식문화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주로 침염의 염색방법을 사용하였고, 황화염료, 직침염료, 염기성, 산성 및 산성크롬 염료, 건염염료 등을 사용했다. 1960년대에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방직산업과 염색가공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화학섬유 및 다양한 색채와 문양의 옷감이 등장하였다. 1970년대에는 3, 4, 5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고급 소재들이 개발되었다. 합성섬유는 경제개발 계획의 시행과 소비자들의 선호로 생산 및 수요가 계속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복은 예복과 의복의 기능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한복에 사용된 색채와 장식은 자수, 금박, 아플리케, 나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매우 다양해지고 화려해졌다. 1980년대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라이프스타일도 변화했으며, 다양한 의복스타일이 공존하게 되었다. 복고풍의 유행과 한복에 대한 인식도 변화됨에 따라 의복의 경량화에 따른 소재의 개발, 천연염색 한복의 유행 현상 등이 나타났다. 또한 전통 한복용 직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은조사, 생고사, 숙고사, 갑사, 자미사, 진주사, 향라, 모본단, 옥사 등의 견직물과 모시 등의 전통 소재들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한복은 그 용도와 기능의 측면에서 더욱 더 예복화되어 그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영희, 김지해 등의 디자이너들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미를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2011년 뉴욕컬렉션에서는 Carolina Herrera가 한복 모티프로 디자인한 옷들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Ⅲ. 여자한복 조사 및 분석 방법

1. 분류 방법

실제 유물의 색채조사에 앞서 저고리(1428점)와 치마(386점)는 각 유물 자료의 기증경로 정보와 선행연구의 치수¹¹⁾, 봉제¹²⁾, 소재¹³⁾, 문양¹⁴⁾, 말기의 종류¹⁵⁾에 관한 자료들을 참조하여 앞의 여섯 시기로 분류하였다. 일부 자료들은 전세유물이거나, 착용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관련자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 시기별 저고리는 1890~1929년 46, 1930~1945년 189, 1946~1959년 250, 1960년대 213, 1970년대 456, 1980~2000년대 274점으로 총 1428점이다(표 2). 또한 저고리의 형태에 따라 민저고리, 반회장, 삼회장, 색동저고리로 구분하였다(표 3). 각 시기별로 민저고리의 수가 가장 높았다. 1890~1929년에 민저고리 41, 반회장 4, 삼회장저고리 1점이었다. 1930~

〈표 1〉 복색 특징에 따른 시기 구분

시 기	특 징
1890~1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의를 선호하여 대부분 소재의복 착용 · 한복의 개량과 소재의 폐지가 주장됨
1930~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복이 장려되는 현상 심화 · 일본은 내선 일체론을 강조하면서 카키색의 국민복 착용 강요
1946~1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을 통해 나일론이 소개되고 유행 · 염색기술의 발달- 다양한 염료의 종류
1960~19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공업화 기반이 조성되어 방직산업이 발전됨 · 생활수준도 향상되면서 유행현상이 나타나고 개량한복 등장
1970~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합성섬유의 황금시대 · 한복은 명절이나 행사 등 특별한 용도의 예복화 기능이 강화됨 - 한복의 소재, 색채, 장식 화려, 다양해짐
1980~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고풍, 전통의 유행과 의복 경량화 현상 · 이영희, Carolina Herrera 등에 의해 세계무대에 한복 모티프 소개

1945년에는 민저고리 161, 반회장 28, 1946~1959년에는 민저고리 207, 반회장 43점이다. 1960년대에는 민저고리 178, 반회장 31, 삼회장 2, 색동저고리 2점이고, 1970년대에는 민저고리 410, 반회장 30, 삼회장 14, 색동저고리 2점으로 삼회장저고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민저고리 242, 반회장

30, 삼회장 2점이다. 색동저고리는 1960~70년대에 각각 2점씩 보이고 있다. 여밈의 종류는 고름, 매듭단추, 단추, 브로치의 4가지 형으로 나타났다<표 4>. 고름은 총 636점으로 1960년대 111점, 70년대 183점, 80년대에도 142점이 나타남에 따라 특히 1960년대 이후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매듭단추는 총

<표 2> 시기별 저고리 수

(점)

시 기	1890~1929	1930~1945	1946~1959	1960~1969	1970~1979	1980~2000	계
점(수)	46	189	250	213	456	274	1428

<표 3> 저고리 형태에 따른 분류

(점)

종류 \ 시기	1890~1929	1930~1945	1946~1959	1960~1969	1970~1979	1980~2000	계
민저고리	41	161	207	178	410	242	1239
반회장	4	28	43	31	30	30	166
삼회장	1	-	-	2	14	2	19
색동저고리	-	-	-	2	2	-	4
계	46	189	250	213	456	274	1428

<표 4> 여밈의 종류

(점)

종류 \ 시기	1890~1929	1930~1945	1946~1959	1960~1969	1970~1979	1980~2000	계
고름	17	69	114	111	183	141	635
매듭단추	13	69	92	25	37	10	246
단추	3	5	5	1	3	-	17
브로치	-	3	25	70	227	18	343
계	33	146	236	207	450	169	1241

<표 5> 시기별 치마 수

(점)

시 기	1890~1929	1930~1945	1946~1959	1960~1969	1970~1979	1980~2000	계
점(수)	2	31	33	144	125	51	386

<표 6> 치마말기 형태에 따른 분류

(점)

종류 \ 시기	1890~1929	1930~1945	1946~1959	1960~1969	1970~1979	1980~2000	계
일자형	2	28	26	51	40	19	166
어깨끈형	-	1	4	31	41	11	88
조끼형	-	-	1	61	44	21	127
계	2	29	31	143	125	51	381

245점 중 광복직후인 1946년부터 50년대에 92점이 나타나 이 시기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추를 사용한 저고리는 많지 않았는데, 80년대 이후로 사용된 저고리는 한 건도 없었다. 브로치는 60년대부터 사용이 증가하다가 70년대에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다. 총 343점 중 70년대에 227점으로 가장 높았다.

치마의 경우는 1890~1929년 2, 1930~1945년 31, 1946~1959년 33, 1960년대 144, 1970년대 125, 1980년~2000년대 51점으로 총 386점이다(표 5). 또한 말기의 종류에 따라 일자형, 어깨끈형, 조끼형으로 분류하였다(표 6). 일자형 말기 형태는 1960년 이전 시기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1890~1929년 2, 1930~1945년 28, 1946~1959년 26점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에는 조끼형 말기의 빈도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3개의 말기형이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두루마기(20점)는 시기를 분류하여 분석할 만큼의 수량이 되지 않아 전체 자료의 색채와 배색을 분석하였다.

2. 조사 및 분석방법

분광 측색기를 통한 측색 조사는 Color technology Co., Japan의 JX-777기기를 사용하여 총 6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조사 2005년 8월, 2차 2005년 9월, 3차 2006년 1월, 4차 2006년 12월, 5차 2009년 1~2월, 6차 조사는 2011년 9월이었다. 조사 대상인 유물들이 출처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달라 6차례에 걸쳐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일부 자료는 인지색 조사도 병행하였다. 측색시의 사용광원은 표준광원 F를 기준으로 하고, Color Reader Version 1.01 프로그램¹⁶⁾을 사용하여 측색한 데이터의 먼셀의 물리적인 H, V, C값을 얻어 활용하였다. 측정 항목은 의복의 구성 부위를 기준으로 주조색과 보조색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조색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전체 또는 70% 이상 사용된 색채로 저고리의 깃, 길과 소매 부위의 색채, 치마의 폭에 사용된 색채이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전체의 20~30% 정도 사용된 색채로, 저고리 구성에 따라 고름, 끝동, 안감, 결마기, 속고름 부위의 색채, 치마의 경우 말기, 끈, 안감 부위에 사용된 색채이다.

또한 같은 직물일지라도 측정되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의 값이 나오므로 각 구성부위를 3번씩 측색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색상분석은 먼셀 표색계를 기초로 한 KS A 0011에서의 물체색의 색 이름 구분에 의거하여 유체색의 R, YR, Y, GY, G, BG, B, PB, P, RP와 무채색의 W, BL의 총 12개의 계열로 분류하였다. 그 후 SPSS window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시기의 색상 빈도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의 빈도분석과 측색된 항목간의 시기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색조 분석은 빈도분석의 결과에 따라 나타난 주색상의 색조 분포를 살펴보고, 명도와 채도값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비교분석의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배색 분석은 구성 부위에 따라 단색, 2색, 3색, 4색배색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색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색채가 다채한 경우(저고리 4점, 치마 1점)와 크기가 작아서 측색이 불가한 부위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저고리

1) 색상결과 분석

저고리의 시기별, 부위별 색상 빈도와 많이 사용된 주(主) 색상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의 결과, 주조색에서는 Y계열과 W계열, 보조색에서는 R계열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시기별로 살펴보면, 1890~1929년에는 모든 부위에서 Y계열 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30~1945년에도 끝동과 고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Y계열, 끝동에서는 PB계열, 고름에서는 R계열의 색상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46~1959년에는 길과 소매부위에서는 W계열, 깃, 안감 부위에서는 Y계열, 끝동과 고름 부위에서는 R계열의 색상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1960~1969년 저고리는 끝동과 고름 부위는 R계열, 나머지 부위는 Y계열의 색

상빈도가 높다. 1970~2000년에는 깃, 끝동, 고름 부위는 R계열, 길, 소매 부위는 Y계열의 색상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60년대 이후부터 매우 많은 양의 문양과 색채가 사용된 저고리의 빈도가 매우 높아져 색채의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중에는 실제로 측색기로 측색이 불가할 정도의 조밀한 문양색을 가진 저고리 4점은 주조색, 보조색의 구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1890~

1929년 끝동, 고름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시기와 부위 중 1890~1929년의 끝동과 고름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주 색상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8).

각 시기에 나타난 부위별 주 색상을 정리해 본 결과(표 9),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색상은 Y, R, W계열이었다.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1890~1929년까지는 Y, W계열의 색상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 삼베, 모시 등의 직물을 염색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소재 계열의 의복을 많이 착용한데

<표 7> 시기별로 나타나는 저고리 부위별 색상 빈도분석

빈도수(%)

시기	부위	색 상 군											합계	
		B	BG	G	GY	P	PB	R	RP	Y	YR	W		BL
1890 ~ 1929	길	-	-	1(2.2)	1(2.2)	-	1(2.2)	1(2.2)	2(4.4)	18(39.1)	4(8.7)	18(39.1)	-	46
	소매	-	-	1(2.2)	1(2.2)	-	1(2.2)	1(2.2)	2(4.4)	18(39.1)	6(13.0)	16(34.8)	-	46
	깃	-	-	1(2.2)	-	-	1(2.2)	3(6.5)	3(6.5)	22(47.8)	6(13.0)	10(21.7)	-	46
	끝동	-	-	-	-	2(4.4)	-	2(4.4)	-	-	-	-	-	4
	고름	-	-	-	-	-	-	4(8.7)	2(4.4)	7(15.2)	3(6.5)	1(2.2)	-	17
	안감	-	-	1(2.2)	-	-	-	-	-	11(23.9)	2(4.3)	1(2.2)	-	15
1930 ~ 1945	길	1(0.5)	1(0.5)	4(1.9)	8(3.9)	1(0.5)	3(1.4)	11(5.3)	9(4.4)	80(38.6)	32(15.5)	57(27.6)	-	207
	소매	-	1(0.5)	3(1.4)	10(4.8)	1(0.5)	4(1.9)	10(4.8)	8(3.9)	82(39.6)	33(15.9)	55(26.6)	-	207
	깃	1(0.5)	1(0.5)	2(1.0)	8(3.9)	1(0.5)	3(1.4)	21(10.1)	9(4.4)	100(48.3)	28(13.5)	33(15.9)	-	207
	끝동	-	-	-	-	1(0.5)	15(7.2)	9(4.3)	-	4(1.9)	5(2.4)	-	-	34
	고름	-	1(0.5)	1(0.5)	1(0.5)	-	-	21(10.1)	9(4.3)	17(8.2)	7(3.4)	4(1.9)	-	61
	안감	-	1(0.5)	1(0.5)	1(0.5)	-	-	4(1.9)	1(0.5)	48(23.2)	17(8.2)	17(8.2)	-	90
1946 ~ 1959	길	3(1.1)	4(1.5)	7(2.6)	13(4.9)	2(0.7)	2(0.7)	18(6.7)	7(2.6)	76(28.4)	33(12.3)	96(35.8)	1(0.4)	262
	소매	1(0.4)	4(1.5)	10(3.7)	11(4.1)	1(0.4)	2(0.7)	18(6.7)	7(2.6)	73(27.2)	35(13.1)	99(37.0)	1(0.4)	262
	깃	4(1.5)	5(1.9)	5(1.9)	10(3.7)	2(0.7)	4(1.5)	22(8.2)	12(4.4)	89(33.2)	32(11.9)	75(28.0)	-	268
	끝동	-	-	-	-	1(0.4)	5(1.9)	7(2.6)	5(1.9)	-	2(0.7)	-	-	20
	고름	2(0.7)	1(0.4)	3(1.1)	6(2.2)	1(0.4)	4(1.5)	23(8.6)	12(4.4)	9(3.4)	9(3.4)	12(4.5)	-	82
	안감	1(0.4)	1(0.4)	-	6(2.2)	-	1(0.4)	8(3.0)	5(1.9)	57(21.3)	26(9.7)	37(13.8)	-	142
1960 ~ 1969	길	11(4.1)	4(1.5)	9(3.4)	14(5.2)	1(0.4)	7(2.6)	28(10.4)	15(5.6)	72(26.9)	36(13.4)	37(13.8)	-	234
	소매	10(3.7)	5(1.9)	6(2.2)	16(6.0)	-	8(3.0)	28(10.4)	17(6.4)	78(29.1)	25(9.3)	36(13.4)	-	229
	깃	10(3.7)	3(1.1)	6(2.2)	15(5.6)	1(0.4)	7(2.6)	31(11.6)	16(6.0)	72(26.9)	30(11.2)	39(14.6)	-	230
	끝동	-	-	-	-	1(0.4)	-	8(3.0)	-	1(0.4)	-	-	-	10
	고름	-	2(0.7)	2(0.7)	6(2.2)	2(0.7)	1(0.4)	21(7.8)	3(1.1)	12(4.5)	4(1.5)	14(5.2)	-	67
	안감	4(1.5)	4(1.5)	1(0.4)	9(3.4)	1(0.4)	5(1.9)	6(2.2)	10(3.7)	29(10.8)	10(3.7)	21(7.8)	-	100
1970 ~ 1979	길	34(5.9)	31(5.4)	28(4.9)	39(6.8)	28(4.9)	42(7.3)	72(12.5)	61(10.6)	88(15.3)	64(11.1)	27(4.7)	6(1.0)	520
	소매	34(5.9)	29(5.0)	29(5.0)	35(6.1)	24(4.2)	44(7.6)	71(12.3)	65(11.2)	89(15.4)	65(11.3)	27(4.7)	4(0.7)	516
	깃	36(6.2)	29(5.0)	26(4.5)	33(5.7)	28(4.9)	37(6.4)	90(15.6)	69(11.9)	83(14.4)	50(8.7)	25(4.3)	4(0.7)	510
	끝동	1(0.2)	2(0.3)	2(0.3)	-	8(1.4)	6(1.0)	18(3.1)	13(2.3)	-	-	-	-	50
	고름	5(0.9)	10(1.7)	6(1.0)	4(0.7)	13(2.3)	12(2.1)	33(5.7)	30(5.2)	6(1.0)	5(0.9)	5(0.9)	-	129
	안감	19(3.3)	12(2.1)	15(2.6)	27(4.7)	17(2.9)	17(2.9)	48(8.3)	40(6.9)	49(8.5)	36(6.2)	26(4.5)	2(0.3)	308
1980 ~ 2000	길	9(2.9)	16(5.1)	8(2.5)	34(10.8)	8(2.5)	16(5.1)	47(14.9)	42(13.3)	52(16.5)	32(10.2)	30(9.5)	-	294
	소매	10(3.2)	17(5.4)	9(2.9)	33(10.5)	11(3.5)	13(4.1)	44(14.0)	43(13.7)	57(18.1)	29(9.2)	28(8.9)	-	294
	깃	9(2.9)	17(5.4)	10(3.2)	24(7.6)	14(4.4)	21(6.7)	59(18.7)	46(14.6)	41(13.0)	27(8.6)	24(7.6)	-	292
	끝동	3(1.0)	-	-	-	4(1.3)	11(3.5)	16(5.1)	9(2.9)	-	1(0.3)	-	-	192
	고름	7(2.2)	9(2.9)	7(2.2)	12(3.8)	11(3.5)	20(6.3)	58(18.4)	39(12.3)	14(4.4)	10(3.2)	5(1.6)	-	192
	안감	11(3.5)	10(3.2)	13(4.1)	15(4.8)	8(2.5)	10(3.2)	34(10.8)	36(11.4)	29(9.2)	18(5.7)	19(6.0)	-	203

<표 8> 시기별로 나타나는 저고리 부위별 색상 검증

시기 \ 부위	길	소매	깃	끝동	고름	안감
1890~1929	114.72(7)**	112.19(7)**	82.63(6)**	-	8.73(4)	21.43(3)**
1930~1945	1199.43(10)**	1065.19(9)*	1277.84(10)**	41.26(4)**	148.91(7)**	465.41(7)**
1946~1959	809.48(10)**	1454.10(10)**	681.14(10)**	12.68(4)*	122.62(10)**	747.87(8)**
1960~1969	597.46(10)**	205.89(9)**	634.38(10)**	13.61(2)**	87.97(9)**	169.41(10)**
1970~1979	312.83(11)**	472.23(11)**	467.93(11)**	73.67(6)**	78.28(10)**	344.05(11)**
1980~2000	166.34(10)**	135.88(10)**	110.87(10)**	55.37(5)**	123.43(10)**	55.61(10)**

* $p \leq 0.05$, ** $p \leq 0.01$

<표 9> 시기별로 나타나는 저고리 부위별 최고 빈도 색상(主 색상)

시기 \ 부위	길	소매	깃	끝동	고름	안감
1890~1929	Y, W	Y	Y	-	-	Y
1930~1945	Y	Y	Y	PB	R	Y
1946~1959	W	W	Y	R	R	Y
1960~1969	Y	Y	Y	R	R	Y
1970~1979	Y	Y	R	R	R	Y
1980~2000	Y	Y	R	R	R	RP

<표 10> 시기별 저고리 부위별 색상차이 검증

시기 \ 부위	길	소매	깃	끝동	고름	안감
1890~1929/1930~1945	7.26(12)	4.44(10)	9.34(11)	10.33(5)	4.14(9)	6.36(8)
1930~1945/1946~1959	12.47(13)	20.30(12)	21.90(13)	20.65(7)*	16.34(12)	18.19(11)
1946~1959/1960~1969	38.54(13)**	61.75(13)**	23.31(13)	11.91(7)	12.00(12)	28.89(11)*
1960~1969/1970~1979	72.86(12)**	97.08(14)**	84.48(13)**	15.42(9)	47.66(12)**	50.42(12)**
1970~1979/1980~2000	27.67(12)	26.18(13)	19.59(14)	14.50(9)	115.93(12)**	9.89(12)

* $p \leq 0.05$, ** $p \leq 0.01$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1930년 이후부터는 저고리의 구성부위에 따라 주조색과 보조색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다. 주조색을 나타내는 길, 소매에서는 Y, W계열, 보조색인 끝동, 고름에서는 R계열이 주 색상으로 나타났다. 깃과 안감부위에서는 시기가 변함에 따라 주 색상도 Y계열에서 R, RP계열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각 시기별로 각 부위의 색상 차이와 변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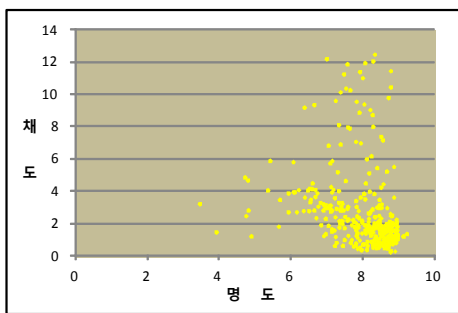
각 시간간의 색상 변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1890년부

터 1945년까지의 시기에서는 색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93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는 끝동부위에서만 색상의 차이가 있었다. 1946년부터 1960년대 사이에는 주조색 그룹인 길, 소매와 보조색 그룹인 안감 부위에서 색상 차이가 나타났다. 1960년대를 기준으로 저고리의 주조색 그룹 색상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서도 끝동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색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2000년 사이에는 고름 부위의 색상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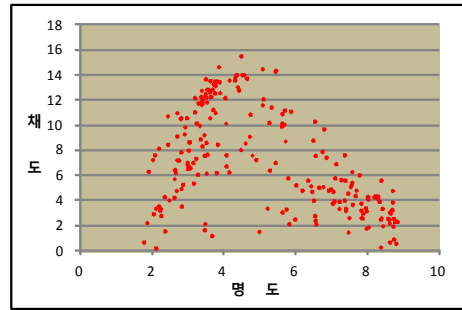
2) 색조결과 분석

색조는 각 시기와 부위의 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Y, R계열의 명도와 채도값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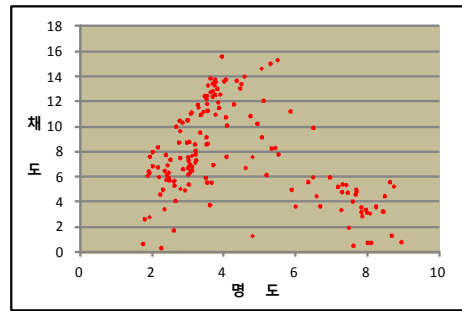
먼저 저고리의 부위별 주 색상의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길과 소매, 안감 부위의 주 색상은 Y 계열로 명도 4~9, 채도 0~12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명도 7~9, 채도 0~4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고명도-저채도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깃 부위의 주 색상은 Y, R계열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960년을 기준으로 Y계열에서 R계열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Y계열의 색조는 길, 소매와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고 있다. 명도 7~9, 채도 0~4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R계열의 색조는 명도 1~9, 채도 0~15 사이에 분포하고,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명도 3~5, 채도 10~14 사이의 색상은 1960년대 이후 다양한 합성섬유와 새로운 염료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색상이라고 파악되었다(그림 2). 끝동과 고름 부위의 주 색상은 R계열의 색상으로 두 부위 모두 비슷한 형태의 분포로, 명도 2~9, 채도 0~16으로 주로 명도 2~5, 채도 6~14 사이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명도-고채도의 색상은 1970년대 유행했던 회장저고리에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3).



〈그림 1〉 길, 소매 Y의 색조 분포



〈그림 2〉 깃 R의 색조 분포



〈그림 3〉 끝동, 고름 R의 색조 분포

앞의 색조 분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비교분석의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부위별 주 색상들의 시기에 따른 색조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색조의 변화는 1960년 이후 시기에 채도값에서 나타났다.

1890~1959년 사이에는 저고리 색조에 뚜렷한 차이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당시 한복의 소재나 염료에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표 11), <표 12>. 1946~1969년 사이에는 깃(Y)을 제외한 부위에서 뚜렷한 변화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깃(Y)은 명도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이 시기 깃에 사용된 Y계열 색상의 색조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알 수 있다(표 13). 1960~1979년 사이에는 길, 끝동 부위의 채도에서만 유의하다는 결과로, 이 시기에 길, 끝동 부위 색조에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는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합성섬유와 염료가 발달됨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색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4). 1970년대 이후에는 길, 소매, 깃(Y), 깃(R) 부위 색상의 채도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이 부위 색조에

<표 11> 1890~1929년과 1930~1945년간의 색조 비교

부 위	명 도					채 도					
	1890~1929		1930~1945		t 값	1890~1929		1930~1945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길(Y)	7.95	0.90	8.13	0.76	-.839	2.23	1.47	2.06	1.25	.492	
소매(Y)	7.95	0.95	8.13	0.81	-.809	2.22	1.47	1.98	1.25	.721	
깃	Y	7.91	1.05	8.15	0.88	-1.108	1.72	0.82	1.70	1.14	.110
	R	2.99	0.49	4.63	2.36	-1.175	6.68	2.60	5.38	2.16	.957
끝동(R)	3.17	0.36	2.95	0.39	.731	8.53	1.89	6.08	2.27	1.399	
고름(R)	3.48	1.05	3.53	1.86	-.047	8.67	4.22	6.57	2.17	1.521	
안감(Y)	7.94	0.39	8.22	1.02	-.877	1.74	0.56	1.42	0.57	1.669	

* $p \leq 0.05$, ** $p \leq 0.01$

<표 12> 1930~1945년과 1946~1959년간의 색조 비교

부 위	명 도					채 도					
	1930~1945		1946~1959		t 값	1930~1945		1946~1959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길(Y)	8.13	0.76	8.14	0.82	-.088	2.06	1.25	2.06	1.54	-.025	
소매(Y)	8.13	0.81	8.11	0.84	.158	1.98	1.25	2.14	1.68	-.696	
깃	Y	8.15	0.88	8.20	0.79	-.393	1.70	1.14	1.67	1.28	.130
	R	4.63	2.36	4.87	2.16	-.355	5.38	2.16	5.81	3.05	-.535
끝동(R)	2.95	0.39	3.12	0.75	-.611	6.08	2.27	7.26	2.19	-1.048	
고름(R)	3.53	1.86	4.40	2.28	-1.371	6.57	2.17	6.62	2.57	-.072	
안감(Y)	8.22	1.02	8.32	0.53	-.631	1.42	0.57	1.52	0.68	-.811	

* $p \leq 0.05$, ** $p \leq 0.01$

<표 13> 1946~1959년과 1960~1969년간의 색조 비교

부 위	명 도					채 도					
	1946~1959		1960~1969		t 값	1946~1959		1960~1969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길(Y)	8.14	0.82	7.96	1.10	1.109	2.06	1.54	2.06	1.61	.004	
소매(Y)	8.11	0.84	7.82	1.15	1.741	2.14	1.68	1.91	1.52	.881	
깃	Y	8.20	0.79	7.84	1.13	2.319*	1.67	1.28	1.95	1.61	-1.205
	R	4.87	2.16	5.81	2.12	-1.573	5.81	3.05	5.78	3.08	.040
끝동(R)	3.12	0.75	2.95	0.84	.409	7.26	2.19	8.25	1.66	-.990	
고름(R)	4.40	2.28	3.63	1.65	1.256	6.62	2.52	6.47	3.21	.167	
안감(Y)	8.32	0.53	8.22	0.54	.776	1.52	0.68	1.41	0.79	.674	

* $p \leq 0.05$, ** $p \leq 0.01$

뚜렷한 변화가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80년대 이후 천 연염색 소재가 유행하고 개인의 색채 선호에 따른 다양한 색채가 한복에 사용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표 15).

3) 배색결과 분석

배색 분석은 저고리의 구성에 따라 측색 조사하여 각 측정 부위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른 색채일 경우와 실물 자료의 육안 조사시 확실히 배색이라고 판

<표 14> 1960~1969년과 1970~1979년간의 색조 비교

부위	명 도					채 도					
	1960~1969		1970~1979		t 값	1960~1969		1970~1979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길(Y)	7.96	1.10	7.98	0.90	-.149	2.06	1.61	88	2.95	-2.114*	
소매(Y)	7.82	1.15	7.95	0.97	-.793	1.91	1.52	2.56	2.94	-1.755	
깃	Y	7.84	1.13	8.02	0.92	-1.087	1.95	1.61	2.22	2.57	-.776
	R	5.81	2.12	5.44	2.16	.836	5.78	3.08	6.85	4.13	-1.318
끝동(R)	2.95	0.84	3.89	1.37	-1.771	8.25	1.66	10.84	0.78	-2.077*	
고름(R)	3.63	1.65	4.27	1.67	-1.375	6.47	3.21	8.57	4.23	-1.935	
안감(Y)	8.22	0.54	8.14	0.70	.574	1.41	0.79	2.37	2.64	-1.888	

* $p \leq 0.05$, ** $p \leq 0.01$

<표 15> 1970~1979년과 1980~2000년간의 색조 비교

부위	명 도					채 도					
	1970~1979		1980~2000		t 값	1970~1979		1980~2000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길(Y)	7.98	0.90	7.82	0.78	1.073	2.95	3.22	4.23	3.64	-2.176*	
소매(Y)	7.95	0.97	7.92	0.73	.248	2.56	2.94	3.93	3.48	-2.537*	
깃	Y	8.02	0.92	7.95	0.73	.425	2.22	2.57	4.39	3.70	-3.802**
	R	5.44	2.16	5.20	2.15	.672	6.85	4.13	8.57	4.39	-2.432*
끝동(R)	3.89	1.37	4.44	2.06	-.930	10.84	3.31	9.30	4.66	1.121	
고름(R)	4.27	1.67	5.03	2.10	-1.772	8.57	4.23	8.28	4.23	-.307	
안감(Y)	8.14	0.70	8.16	0.66	-.145	2.37	2.64	3.45	2.93	-1.683	

* $p \leq 0.05$, ** $p \leq 0.01$

<표 16> 시기별 배색 빈도

(점)

배 색 \ 시 기	2색	3색	4색	합 계
1890~1929	6	3	-	9
1930~1945	31	15	2	48
1946~1959	35	20	4	59
1960~1969	57	11	-	68
1970~1979	107	19	1	127
1980~2000	33	2	-	35
합 계	269	70	12	346

* $p \leq 0.05$, ** $p \leq 0.01$

단되는 경우만을 선택하여 2색배색 이상의 분석이 가능한 저고리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단색배색은 저고리의 각 부위의 색이 모두 같은 것을 말하며 각 시기별로 매우 다양한 색이 사용되었다. 소색계열의

배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1946년 이후 등장한 검정색의 배색은 근대이후 복색의 가장 이례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2색, 3색, 4색배색을 살펴볼 수 있는 저고리는 총 1428점의 저고리 중 350

<표 18> 시기별로 나타나는 치마 부위별 색상 검증

시기 \ 부위	폭(겉감)	말기	끈	안감
1890~1929	-	-	-	-
1930~1945	26.22(6)**	61.89(4)**	67.03(4)**	1.5(3)
1946~1959	9.87(10)	16.43(6)*	16.43(6)*	3.45(7)
1960~1969	81.88(10)**	80.32(9)**	74.71(9)**	45.85(10)**
1970~1979	223.38(11)**	83.75(7)**	39.94(7)**	69.43(10)**
1980~2000	58.70(8)**	22.44(6)**	4.07(3)	22.45(7)**

* $p \leq 0.05$, ** $p \leq 0.01$

<표 19> 시기별로 나타나는 치마 부위별 최고 빈도 색상(主 색상)

시기 \ 부위	폭(겉감)	말기	끈	안감
1890~1929	-	-	-	-
1930~1945	Y	W	W	-
1946~1959	-	W	W	-
1960~1969	PB	Y	Y	RP
1970~1979	Y	W	W	R
1980~2000	R	R	-	R

<표 20> 시기별 치마 부위별 색상 차이 검증

시기 \ 부위	폭(겉감)	말기	끈	안감
1890~1929/1930~1945	4.89(6)	1.25(5)	0.94(5)	0.47(4)
1930~1945/1946~1959	16.87(10)	15.56(9)	14.96(9)	8.75(6)
1946~1959/1960~1969	15.25(10)	35.84(11)**	35.96(11)**	11.78(11)
1960~1969/1970~1979	10.41(12)	15.67(11)	17.55(11)	20.99(11)*
1970~1979/1980~2000	18.77(12)	23.89(9)	7.85(9)	10.98(11)

* $p \leq 0.05$, ** $p \leq 0.01$

점이었으며, 이 중 2색배색 저고리는 268점이었다. 3색배색 저고리는 70점, 4색배색 저고리는 12점이다 <표 16>.

2색배색은 저고리의 구성에서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이 다른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조색 그룹에 고명도의 Y, YR, RP, GY계열 색상을, 보조색 그룹에 저명도-고채도의 R, Y, P, RP, B계열 색상을 사용한 2색배색이 나타났다. 그러나 60년대 이후에는 원색과 중간색들을 사용하여 각각의 조화를 이룬 2색배색이 나타났다. 3색배색과 4색배색은 깃, 끝동, 고름, 안감의 보조색 그룹에서 2-3가지 색채를 가진

배색 형태이다. 배색의 형태는 길(소매)-끝동-고름, 길(소매)-끝동-안감의 배색 구조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경우 깃, 고름, 끝동은 같은 색채를 사용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배색 구조를 살펴보면, 1930~59년에는 주조색 부분인 길과 소매는 Y계열, 보조색 부분인 끝동은 B, PB계열, 깃과 고름은 R계열인 3색배색 구조와 이러한 3색 배색에 속고름의 RP계열이 더해진 4색 배색 구조가 유행하였다. 이러한 배색 구조는 착용자의 지위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 당시 유행했던 배색 구조이고, triads(3색상 대조)의 배색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이전 시기에

사용되지 않았던 중간색과 형광색, 반짝이는 색과 문양이 많이 사용된 소재를 걸감과 안감으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배색구조가 나타났다.

한편 한복의 배색의 경우, 저고리와 치마, 저고리와 바지 등 상의와 하의의 구성으로 착용되었을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배색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물의 보존 상태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습을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의복에 구성부위에 따른 배색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2. 치마

1) 색상결과 분석

치마의 시기별, 부위별 색상의 빈도와 많이 사용된 주(主) 색상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량의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의 결과, 1980년대 이후를 제외하고 폭 걸감 부위에는 Y, PB계열, 말기와 끈 부위에는 Y, W계열, 폭 안감 부위에는 Y, RP계열의 색상이 사용

되었다(표 17). 1890~1945년에는 모든 부위에서 Y, W계열 색상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46~69년에는 폭 걸감 PB계열, 말기와 끈 부위 Y, W계열, 폭 안감 RP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1970~79년에는 폭 걸감 Y계열, 말기와 끈 부위 W계열, 폭 안감 R계열의 빈도가 높으며, 80년 이후에는 모든 부위에 R계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1890~1929년에는 빈도수가 너무 작아 통계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1930~1945년 안감부위, 1946~1959년 폭 걸감 부위, 1980년대 이후 끈 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위 3개의 부위를 제외한 치마의 구성 부위에서 주 색상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8).

치마의 각 시기별, 부위별 주 색상은 Y, W, R, PB계열이었다. 각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1930~59년까지는 Y계열과 W계열의 색상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60년 이후부터는 폭의 걸감부위는 10년 단위로 PB, Y, R계열로 변화하였으며, 말기와 끈은

<표 17> 시기별로 나타나는 치마 부위별 색상 빈도분석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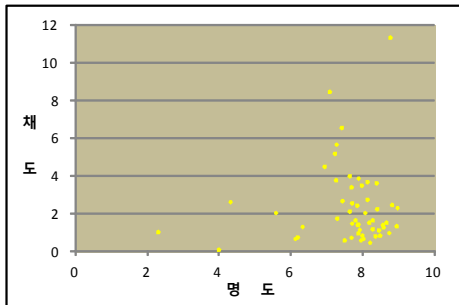
시기	부위	색 상 군											합계	
		B	BG	G	GY	P	PB	R	RP	Y	YR	W		BL
1890 ~	걸감	-	-	-	-	-	-	-	-	2(6.1)	-	-	-	2
	말기	-	-	-	-	-	-	-	-	1(3.0)	-	1(3.0)	-	2
1929	끈	-	-	-	-	-	-	-	-	1(3.0)	-	1(3.0)	-	2
1930 ~	걸감	-	1(3.2)	1(3.2)	-	-	7(22.6)	5(16.1)	5(16.1)	8(25.8)	4(12.9)	-	-	31
	말기	-	-	-	-	-	1(3.2)	-	1(3.2)	6(19.4)	3(9.7)	19(61.3)	-	30
1945	끈	-	-	-	-	-	1(3.2)	-	1(3.2)	7(22.6)	2(6.5)	19(61.3)	-	30
	안감	1(3.2)	-	-	-	-	-	-	1(3.2)	3(9.7)	1(3.2)	-	-	6
1946 ~	걸감	3(9.4)	1(3.1)	1(3.1)	1(3.1)	1(3.1)	5(15.6)	2(6.3)	2(6.3)	1(3.1)	3(9.4)	4(12.5)	-	24
	말기	-	1(3.1)	2(6.3)	-	1(3.1)	-	1(3.1)	-	6(18.8)	1(3.1)	7(21.9)	-	19
1950	끈	-	1(3.1)	2(6.3)	-	1(3.1)	-	1(3.1)	-	6(18.8)	1(3.1)	7(21.9)	-	19
	안감	2(6.3)	1(3.1)	-	1(3.1)	-	2(6.3)	2(6.3)	4(12.5)	1(3.1)	2(6.3)	-	-	15
1960 ~	걸감	21(12.5)	10(6.0)	3(1.8)	11(6.5)	12(7.1)	23(13.7)	16(9.5)	16(9.5)	3(1.8)	20(11.9)	9(5.4)	-	144
	말기	1(0.6)	1(0.6)	-	4(2.4)	1(0.6)	1(0.6)	9(5.4)	5(3.0)	14(8.3)	3(1.8)	12(7.1)	-	51
1969	끈	1(0.6)	-	1(0.6)	3(1.8)	1(0.6)	1(0.6)	7(4.2)	5(3.0)	15(8.9)	2(1.2)	12(7.1)	-	48
	안감	11(6.5)	12(7.1)	4(2.4)	4(2.4)	4(2.4)	4(2.4)	14(8.3)	24(14.3)	8(4.8)	7(4.2)	3(1.8)	-	95
1970 ~	걸감	10(6.5)	13(8.4)	4(2.6)	12(7.8)	9(5.8)	19(12.3)	17(11.0)	18(11.7)	20(13.0)	4(2.6)	1(0.6)	1(0.6)	128
	말기	-	2(1.3)	1(0.6)	-	1(0.6)	-	14(9.1)	9(5.8)	6(3.9)	5(3.2)	15(9.7)	-	53
1979	끈	1(0.6)	1(0.6)	-	-	-	1(0.6)	8(5.2)	6(3.9)	1(0.6)	3(1.9)	10(6.5)	-	31
	안감	2(1.3)	3(1.9)	4(2.6)	1(0.6)	7(4.5)	3(1.9)	20(13.0)	10(6.5)	11(7.1)	7(4.5)	2(1.3)	-	70
1980 ~	걸감	3(5.5)	5(9.1)	-	6(10.9)	1(1.8)	3(5.5)	18(32.7)	10(18.2)	3(5.5)	1(1.8)	-	-	50
	말기	-	-	2(3.6)	2(3.6)	-	-	12(21.8)	8(14.5)	5(9.1)	2(3.6)	7(12.7)	-	38
2000	끈	-	-	-	1(1.8)	-	-	4(7.3)	3(5.5)	-	-	1(1.8)	-	9
	안감	-	1(1.8)	1(1.8)	2(3.6)	-	-	9(16.4)	7(12.7)	3(5.5)	1(1.8)	2(3.6)	-	26

Y, W계열에서 80년대 이후 R계열로 변화하였다. 치마 말기와 끈 부위에서 나타난 Y계열 색상들은 당시 여러 가지 염색가공이 되지 않은 소재들의 사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작당시에는 W계열이었던 원단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황변화 현상색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안감부위는 R, RP계열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다(표 19).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각 시기별로 각 부위의 색상 차이와 변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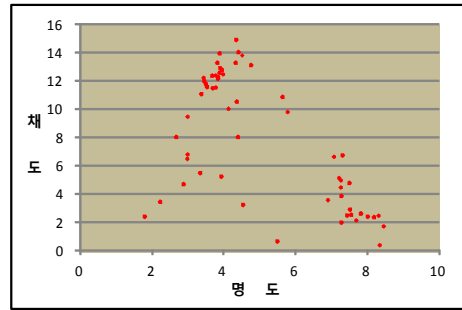
각 시간간의 색상 변화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1890~1959년까지의 시기에서는 색상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946~1960년대 사이에는 말기와 끈 부위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사이에서는 안감부위에서 색상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대와 80년대 이후 사이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색조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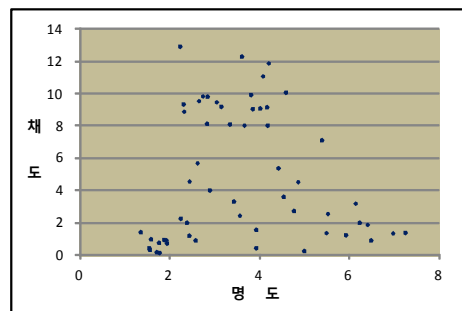
색조는 폭의 길감의 주 색상인 Y, R, PB계열과 안감의 R계열의 명도와 채도 값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폭 길감 부위의 Y계열 분포는 명도 2~9, 채도 0~12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명도 7~9, 채도 0~4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고명도-저채도의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또한 폭 길감, 안감 부위의 사용된 R계열 분포는 명도 4, 채도 12~14 부분과 명도 8, 채도 2~5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다(그림 5). 폭 길감의 PB계열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그림 6).



〈그림 4〉 치마 걸감 Y의 색조 분포



〈그림 5〉 치마 걸(안)감 R의 색조 분포



〈그림 6〉 치마 걸감 PB의 색조 분포

앞의 색조 분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비교분석의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여 부위별 주 색상들의 시기에 따른 색조 차이를 분석한 결과 60년대로 넘어가면서 폭 길감의 PB계열의 채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표 23), 나머지 시기와 부위에서는 뚜렷한 차이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1), <표 22>, <표 24>, <표 25>.

3) 배색결과 분석

치마의 배색구조는 주로 2색과 3색배색의 구조로 나타났다. 2색배색은 치마의 폭의 걸, 안감과 말기, 끈 부위의 색채가 다른 배색구조로 명도가 높은 Y, W계열의 색을 말기와 끈 부위에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명도와 채도가 낮은 Y, R, PB, B계열의 색채를 폭의 걸, 안감에 배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3색배색은 폭의 안감에 걸감과 다른 색채를 사용하는 형태였다. 총 386점의 치마 중 2~3색 배색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치마는 270점이었고, 그중 2색 배색구조는 245점, 3색 배색구조는 25점이었다. 2색 배색구조

<표 21> 1890~1929년과 1930~1945년간의 색조 비교

부 위	명 도					채 도				
	1890~1929		1930~1945		t 값	1890~1929		1930~1945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 걸감(Y)	8.64	0.48	8.43	0.55	.486	1.94	0.47	3.07	3.66	-.415
폭 걸감(PB)	3.00	0.67	2.94	0.83	.127	7.47	3.33	5.85	3.83	.780
폭 걸감(R)	5.19	2.19	3.37	0.66	1.093	8.90	4.14	8.45	5.37	.120
안감(R)	4.90	2.72	4.11	2.09	.485	5.80	4.13	7.10	4.90	-.356

* $p \leq 0.05$, ** $p \leq 0.01$

<표 22> 1930~1945년과 1946~1959년간의 색조 비교

부 위	명 도					채 도				
	1930~1945		1946~1959		t 값	1930~1945		1946~1959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 걸감(Y)	8.43	0.55	7.30	-	1.895	3.07	3.66	1.70	-	.352
폭 걸감(PB)	2.94	0.83	3.65	1.89	-.814	5.85	3.83	2.88	3.54	1.674
폭 걸감(R)	3.37	0.66	5.49	2.14	-1.357	8.45	5.37	5.60	4.00	.929
안감(R)	4.11	2.09	5.16	2.06	-1.448	7.10	4.90	7.49	4.79	-.230

* $p \leq 0.05$, ** $p \leq 0.01$

<표 23> 1946~1959년과 1960~1969년간의 색조 비교

부 위	명 도					채 도				
	1946~1959		1960~1969		t 값	1946~1959		1960~1969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 걸감(Y)	7.3	-	7.37	1.14	-.057	1.70	-	1.90	1.49	-.133
폭 걸감(PB)	3.65	1.89	3.99	1.36	-.644	2.88	3.54	5.59	3.93	-2.341*
폭 걸감(R)	5.49	2.14	5.06	1.71	.641	5.60	4.00	8.32	4.69	-1.784
안감(R)	5.16	2.06	5.05	2.04	.134	7.49	4.79	7.57	4.23	-.041

* $p \leq 0.05$, ** $p \leq 0.01$

<표 24> 1960~1969년과 1970~1979년간의 색조 비교

부 위	명 도					채 도				
	1960~1969		1970~1979		t 값	1960~1969		1970~1979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 걸감(Y)	7.37	1.14	7.43	1.50	-.145	1.90	1.49	2.28	1.46	-.817
폭 걸감(PB)	3.99	1.36	3.90	1.93	.097	5.59	3.93	5.74	5.08	-.058
폭 걸감(R)	5.06	1.71	5.13	2.06	-.113	8.32	4.69	8.64	4.64	-.206
안감(R)	4.11	2.09	5.16	2.06	-1.448	7.10	4.90	7.49	4.79	-.230

* $p \leq 0.05$, ** $p \leq 0.01$

중 폭 걸감에 PB, R계열, 끈, 말기, 안감에 Y, W계열을 사용한 배색이 3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치마 구성에 따른 배색 분석은 말기, 끈, 폭의 안감과 같은 경우 착용

<표 25> 1970~1979년과 1980~2000년간의 색조 비교

부위	명 도					채 도				
	1970~1979		1980~2000		t 값	1970~1979		1980~2000		t 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폭 걸감(Y)	7.43	1.50	7.68	0.72	-.282	2.28	1.46	3.96	3.97	-1.458
폭 걸감(PB)	3.99	1.36	3.90	1.93	.097	5.59	3.93	5.74	5.08	-.058
폭 걸감(R)	5.06	1.71	5.13	2.06	-.113	8.32	4.69	8.64	4.64	-.206
안감(R)	5.16	2.06	5.05	2.04	.134	7.49	4.79	7.57	4.23	-.041

* $p \leq 0.05$, ** $p \leq 0.01$

시에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걸감과 같은 색채를 사용하거나, Y, YR, W계열의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3. 두루마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두루마기는 수량이 너무 작아 기본적인 색채와 배색만을 분석하였다. 두루마기 총 20점 중 걸감에 사용된 색채는 Y, B계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안감에는 Y, RP계열의 색채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마기는 의외류로 착용되는 의복의 성격상 저명도-고채도의 색상들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문양직물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4. 근대이후 복색의 변천 분석

근대 이후 여자한복 유물을 통해 본 색채와 배색의 변천 특징을 살펴보면, 1890년부터 1959년까지의 시기와 80년 이후에는 색채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1960년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색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도 근대이후 복색 변천 특징에 따라 3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1890년대부터 1959년대에 나타난 색채특징은 소재 계열의 의복들이 가장 많이 착용되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1930년대 이후 검정색 저고리의 등장은 근대 이후의 가장 획기적인 복색의 사용이며, 배색의 특징에서는 흰 바탕에 남 끝동, 자주 고름의 3색(4색)배색 구성을 가진 저고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깃, 고름, 걸마기, 끝동의 색채에 의해 착용자의 가족관계나 현재 지위를 나타내었는데 보통 자주 회장에 남 끝동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입었다고 한다.¹⁷⁾ 따라서 이러한 배색의 저고리는 당시에도 착용자의 지위나 상황을 나타내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당시 어떠한 의복 개혁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더라도 그 결정이 사회적 수용 주체인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다.¹⁸⁾ 이에 따라 그 시대의 의복 변화의 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배경과 정서에 의해 이 시기 여자 한복 색채와 배색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1950년 중반부터는 파스텔 톤의 색상과 남색, 회색, 검정색 등의 다양한 색상이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염색기술이 발달되었고, 정부의 섬유공업 육성계획에 힘입어 면직물을 중심으로 염색기공이 주류를 이루었다.¹⁹⁾ 1960년대 이후, 섬유산업은 국가 정책상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어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70년대에는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색채에 더욱 민감해짐에 따라 직물업계의 디자인, 색채, 직물조직 등이 직물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자수와 나염 기술의 보급 및 디자인, 패턴 기술의 향상, 다양한 염색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고, 색채와 문양이 다양화되면서 60년대 중반부터는 화려한 vivid 컬러의 꽃문양,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나타나 한복에도 사용되었다.²⁰⁾ 70년대에는 섬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스크린 나염, 전사 나염 등의 기술이 보급되어 섬세하고 정확한 문양의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일반 한복 직물뿐만 아니라 서양복 직물도 구분 없이 사용되었

다. 또한 의복 착용시 개인의 기호와 창의성을 증시하는 개인주의적 경향²¹⁾이 한복 색채 선택에서도 반영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의식의 변화와 경제 발전에 의하여 1960년~70년대 말까지는 색채와 배색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실제 유물자료에서도 측색이 불가할 만큼의 문양과 다채한 색채의 저고리와 치마 자료로 확인 가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컬러TV의 방영 및 사회 및 경제의 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통한복과 관련 산업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에콜로지 운동이 전개되면서 실용적인 소재, 천연염색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당시 특수 염료와 소재의 개발이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 한복 색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근대이후 여자한복에 나타나는 색채와 배색을 중심으로 색상 및 색조, 배색의 변천과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유물자료의 측색 및 분석을 위해 1890~2000년 시기를 이론적 배경에 따라 6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여자 한복 1834점을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시기를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유물자료 별로 각각의 구성 부위에 따라 주조색과 보조색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분광 측색기를 사용하여 색채의 물리적인 H, V, C 값을 파악하였다. 측색 조사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과 Excel을 사용하여 색상, 색조, 배색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대이후 여자저고리에서 나타나는 한복 색채의 특징은

첫째, 색상에 있어서 저고리의 경우 각 시기별, 부위별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주 색상은 Y, W, R계열이었다. 또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분된 여섯 시기 사이에 색상 차이를 살펴본 결과 1890~1959년의 시기와 80년대 이후 시기에는 색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1960년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전체

저고리 색상에 큰 변화가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치마의 경우 시기에 따라 폭 길감에 사용된 주색상이 Y, PB, Y, R계열의 순서로 변화하였고, 폭 안감은 주로 R, RP계열의 색상이 사용되었다.

둘째, 색조를 살펴보면 저고리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명도, 저채도의 색상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60년대 이후에는 저명도, 고채도의 색상도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60년대 이후 다양한 색채의 저고리가 착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색채들이 개인의 기호대로 자유롭게 사용됨에 따라 개인주의의 경향이 색의 선택에서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마의 경우도 저고리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PB계열의 경우에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두루마기는 의외류로서 다양한 문양과 저명도-고채도의 색채가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배색을 살펴보면, 단색배색에서는 소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저고리, 치마 모두 2색 배색의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고리의 경우 주조색 Y계열을 기준으로 보조색 R계열을 사용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Y-RP, GY-R, BG-R, BL-R 등의 구조가 나타났다. 3색, 4색 배색의 구성은 저고리의 끝동, 깃부위 등에 다른 색채를 배치하고, 착용시 치마와의 색채 어울림을 고려한 상징적, 미적인 효과를 높이는 배색 특징이 나타났다. 또한 1960~70년에는 다양한 색채가 사용됨에 따라 한국의 고유색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청록색, 형광빛 주황 또는 측색이 불가할 정도의 화려한 색채와 문양이 많이 들어간 소재들을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배색구조가 나타났다.

또한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에 사용된 색채와 배색은 각 의복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치마보다는 저고리나 두루마기에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착용시의 보이는 구성 면적과 시각적인 이미지 효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아 있는 복식 유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 및 색채 부분에서 손실되기 쉬우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전통한복이 예복의 기능만

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형식과 내용이 충실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미래 한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이순자 (1999), 한국전통복색에 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7(1), p. 83.
- 2) 음정선, 채금석 (2006), 한국, 일본의 전통 색채관과 복색에 관한 비교연구, *복식*, 56(6), pp. 16-32.
김미진, 조우현 (2006), 한국 근대 서양화에 표현된 한복의 배색에 관한 연구, *복식*, 56(1), pp. 5-12.
- 3) 김미진 (2006), 한국 근대 색채시각자료에 표현된 한복 배색에 관한 연구-회화와 잡지표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7-13.
- 4) 이호정, 조우현 (2012), 기산풍속화를 통하여 본 한국 근대복식 고찰, *복식*, 62(4), pp. 15-31.
- 5) 이태옥 한복연구소 소장.
- 6)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소장.
- 7) 대전 성모여자 고등학교 소장.
- 8) 박춘순, 조우현, 이호정 (2009), 근대이후 여자저고리 실물의 색채와 배색에 관한 연구, *복식*, 59(2), pp. 1-17의 내용 참고 정리.
- 9) 신문박물관 (2004), *한국의 신문광고 100년*, 서울: 신문박물관, p. 9.
“장날마다 백의인에게 붉은 물 뿌려” (1933. 11. 4), *조선일보*, p. 4.
- 10) 고부자 (2001), *우리생활 100년·웃*, 서울: 현암사, pp. 202-203.
- 11) 이태옥 (2005), 19세기 이후 여자 저고리 변천에 관한 실증적 연구-형태 및 봉제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미래 (2009), 20세기 여자 저고리, 치마의 형태 변천과 요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2) 박나나 (2010), 근대이후 여자저고리 봉제방법의 특징과 변화요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홍, 조우현 (2008), 근대이후 저고리 안감깃 봉제방법 소고,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0(2), pp. 139-147.
- 13) 이은진, 홍나영 (2001), 해방이후의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5), pp. 868-879.
신혜성, 홍나영 (2003), 해방이후 한복용 단직물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6), pp. 715-724.
- 14) 안현주 (2010),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5) 김미래, *op. cit.*
- 16) Color techno system Co., Japan의 JX-777 Guide Book 참조.
- 17) 조효순 (1998), 조선조 풍속화에 나타난 여자의 기본복식연구 1: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1(2), p. 24.
- 18) 고주미 (2000), 패션의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 -20세기 전반기 한국 패션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8-60.
남윤숙 (1990),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연구, *복식*, 14, pp. 99-119.
- 19)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편 (2004), *染色加工産業五十年史*, 서울: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pp. 86-87.
- 20) 박길순, 김진구 (1990),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국 여성복식의 변화에 미친 영향-1945-1988을 중심으로-, *복식*, 15, p. 115.
- 21) 김찬주, 홍나영, 유혜경, 이주현 (2001), 20세기 초와 20세기 말의 전통한복 착용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4), pp. 1-18.